

이방인 레위인들

아세르 인트레이터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여 얻은 셋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아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가까이 동행”하리라고 말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창 29:34. 이것이 레위 ʾלֵוִי 의 어근입니다. 레아는 혼적으로 의도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가족을 선택하심에 있어 이 이름을 영적 속명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된 사람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주님께 “매달린”, “연합된”, “가까이 달라붙은”, “동행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캔사스 시티)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이사야 56:7 –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56:3&6 –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사야 56장에서 “연합된”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창세기 29장에서 레위라는 이름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 나라의 자손들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의 이 이방인 레위 제사장직의 특별한 성취를 묘사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21 –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들은 기도와 제사장적 예배의 영적 측면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귀환과 이스라엘 나라 재건도 돕는 이방인들입니다(사 66:10-20). 시온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들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의 제사장적 측면만큼이나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직의 성취를 봅니다: 첫째는 예슈아 안에서,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앞서(능가하는) 반차를 따른,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의 성취 (히 7장),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직 성취 (벧전 2:9; 계 1:6). 메시아의 몸 전체,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여호와께 연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 기도 운동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서로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의 열흘

저희는 여러분께서 엘룰 월과 나팔절 및 속죄일까지의 이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과 특별한 성별로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도록 권면 드립니다. 나팔절(티슈레이 월, 일곱 번째 달 첫째 날)부터 속죄일(티슈레이 월 열째 날)까지 열흘은 히브리 전통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는 뜻의 “경외의 열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팔절은 요한 계시록에 대한난의 나팔들을 상징하고, 속죄일은 예수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이 사이 열흘은 예언과 마지막 때 사건들이 성취되는 특별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안식년인 금년에는 영적 변화, 위기, 재-정렬, 정치적 분쟁, 경제적 격변 등이 특별히 집약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음식이나 음료나 미디어나 오락이나 그밖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금식하십시오. 그런 다음 옴 키푸르에 저희와 함께 종일 금식으로 끝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쇼파르 남용

저희의 합동 예배에서 저희가 불경스런 정도로 쇼파르를 너무 불었던가요? 사람들이 예배 모임에 각자 쇼파르를 가져와 불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부는 것이 유익한가요?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중 예배에서는 그들의 예배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중 일을 처리하는 장로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론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

중 안에서의 악기 사용을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영상에서 론 칸토르는 이 질문들과 그 외에 것들을 다룹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WS-3CQjm_wM

쓴 뿌리

하나 와그너

저는 최근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더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히브리서 12: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에 있는 “쓴 뿌리”가 제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 마음에 아직 쓴 뿌리가 있고 제가 그것을 더 깊게 잘라내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뿌리는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주님께서 이것이 전반적인 “메시아의 몸”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주

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이 이런 쓴 뿌리로 가득하기에 놓여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용서치 않는 숨겨진 뿌리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몸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여 쓴 뿌리를 제거하고 은혜와 거룩의 영을 풀어놓기 좋은 때입니다. 건강한 뿌리는 건강한 열매를 낼 것입니다.

왕국 재정렬

이 메시지에서 아세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이들의 삶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개인적 행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메시아께 맞추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아의 몸 안에 주신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https://soundcloud.com/revive-israel-media/kingdom-alignment>